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5월 10일

CUOMO 주지사,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 참여 발표

사이버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 시민과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에 관해 Cuomo 행정부와 협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행정부에 사이버 보안의 발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뉴욕주의 중요한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번 1월에 Cuomo 주지사는 주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임명된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방대한 경험을 도입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 데이터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서로 인해 오늘 이 같은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사이버범죄 조직단 구성원 8명이 단지 인터넷만으로 대규모 은행 습격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4,50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으며 뉴욕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만 280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주 법원행정국(AOC)은 웹 사이트에 보안 침입이 발생했었으며, 이는 최대 160,000개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100만개의 운전 면허 번호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안 침입 사건의 조사는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주도로 Multi-Stat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에서 수행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은행과 쇼핑은 물론, 통신 네트워크와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 사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대부분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방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출몰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뉴욕주 역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ID 절도에서 소비자 사기,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험으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자들은 국가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에 대한 주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정부 각계각층은 통신 네트워크,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주요 사이버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Cuomo 주지사 행정부와 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뉴욕이 공공 사이버 보안 방어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Elizabeth Glazer 공공 안전 담당 주지사 부장관과 Benjamin M. Lawsky 금융 서비스 감독관을 공동 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Richard Clarke, *Good Harbor Consulting, LLC 회장 겸 CEO*

Clarke는 백악관 고문으로 3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사이버 보안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글로벌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보안 및 반테러 관련 국가 조정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기 전에 Clarke는 국방부, 국무부 및 여러 정보국에서 1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George H.W. Bush 대통령 행정부 시절 그는 정치 군사 담당 국무 차관보로 근무했으며 Reagan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정보 담당 부차관을 지냈습니다. Clarke는 여러 가지 책을 집필했으며, 그 중에서 *Against All Enemies: Inside America's War on Terror* and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Shawn Henry, *CrowdStrike Services 회장*

Henry는 FBI의 전 세계 범죄 및 사이버 프로그램과 조사 작업을 모두 감독했던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 이사직을 비롯하여 FBI에서 24년 동안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부문 부국장 대리 및 부국장, 국가 인프라 보호 센터 컴퓨터 조사 팀장, 볼티모어 현장 사무소 컴퓨터 범죄반 현장 감독자, 국가 안보부 간부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Henry는 FBI가 이끄는 주 연합 센터인 NCIJTF(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의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조정 작업과 사이버 위협 조사를 담당합니다. 그는 CNCI(Comprehensive National Cyber Security Initiative)를 개발한 National Cyber Study Group의 초기 회원입니다.

Will Pelgrin, *CIS(Center Internet Security) 회장 겸 CEO, MS-ISAC(Multi-Stat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설립자*

Pelgrin은 CSCIC(Cyber 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Coordination) 뉴욕주 사무국 최고 사이버 보안 담당자로 활동하는 등 뉴욕주 정부에서 2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Pelgrin은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 국가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센터에 전략과 국제 연구를 브리핑하는 위원회 회원으로 근무했으며, Obama 대통령의 60일 사이버 정책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hil Reitinger, *Sony Corporation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Reitinger는 현재 Sony Corporation에서 정보 보안, 정책, 인터넷 보안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Reitinger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NPPD(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및 NCCS(Director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의 차관 대리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담당했던 그는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서 DHS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했으며, 문민 정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하고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민간 부문을 지원하도록 연방 정부의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Reitinger는 이전에 국방부 사이버 범죄 센터와 사법부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Microsoft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인프라 전략가로 활동했습니다.

Howard Schmidt, *전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 및 Obama 대통령 특별 보좌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31년간 근무한 이후 최근에 은퇴한 Schmidt는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으로 Obama 대통령과 함께 일했습니다. 2001년에 Schmidt는 George W. Bush 대통령에 의해 사이버 보안 담당 특별 고문 및 대통령의 중요한 인프라 보호 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및 공공 부문 조직의 비영리 컨소시엄인 ISF(Information Security Forum)에서 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ISF에서 활동하기 전에 Schmidt는 eBay Inc.의 부회장 겸 최고 정보 보안 담당자로 근무했으며 이전에 Microsoft 최고 보안 담당자로 활동했습니다. Schmidt는 1967년에서 1983년까지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역 및 민간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1990년대에는 FBI의 국립 약물 정보 센터의 컴퓨터 개발팀을 책임지는 등 군대 및 법 집행 서비스 분야에서 26년 동안 일했습니다.

Richard Clarke는 "주 정부는 광범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공공 안전과 경제에 필수적인 주요 민간 부문 네트워크의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사이버 자문위원회 설립은 뉴욕주의 사이버 인프라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저는 이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awn Henry는 "사이버 보안 자무위원회를 만든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FBI에서 24년을 근무하면서 저는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강력한 절차와 규약이 실행되어야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뉴욕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좌절시키는 뉴욕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협력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 Pelgrin은 "저는 과거에 뉴욕주 최고 사이버 보안 담당자로 활동하는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주와 민간 부문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은 실제 상황이며, 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뉴욕주의 대응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체결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hil Reitinger는 “저는 수많은 시간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공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성공의 핵심이며, Cuomo 주지사의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는 뉴욕주에서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oward Schmidt는 “백악관에서 사이버 보안 계획 및 정책 담당자로 근무하는 등 수많은 시간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몸담았던 저는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회를 설립한 Cuomo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협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고안하고 뉴욕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설립은 Cuomo 주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실제와 사이버가 결합된 인프라 보안 운영 센터를 최초로 새롭게 수립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센터에는 군사 및 해군 담당 부서, 뉴욕주 경찰, 뉴욕주 국토 비상 서비스국 등 연방, 주, 지역 기관의 다양한 보안 정보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법 집행 담당자는 사이버 위협과 실제 위협 모두를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